

柳台佐의 생애와 학문성향

권 오 영*

국문초록

柳台佐(1763~1837)는 柳成龍 이후 忠孝 두 글자를 전승해온 安東 河回의 豐山柳氏 가문의 8世의 文獻家에서 태어났다. 그는 풍산류씨의 家學을 잘 지켜나가고 몸소 실천을 하였다. 그의 학문성향은 朱子學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는 周敦頤와 二程의 心學의 핵심이 主靜과 主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주정이 주돈이의 「太極圖說」의 가르침으로 심학의 핵심이고, 이정이 주정에서 주경으로 전환한 것은 더욱 道學의 핵심이 된다고 이해했다.

류이좌는 四書 중에서도 『大學』과 『中庸』을 깊이 연구하고 강론하였다. 그는 『대학』의 강령인 明明德의 明德을 本心으로 이해했다. 그는 명덕에 대해 본심의 虛靈不昧한 모습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중용』의 핵심인 誠은 實理, 實心을 말한다고 했다. 그는 하늘에 있어서는 實理라고 말하니, 命이라는 것은 실리의 근원을 가리키고, 性이라는 것은 실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는 사람에 있으면 實心이니, 道라는 것은 실심의 功이고, 教라는 것은 실심의 드러남이라고 이해했다. 또한 그는 朱子書의 강령이 義理를 밝힌다는 '明義理' 세 글자에 있다고 했다. 이러한 그의 학문성향은 18세기말 英·正祖시대에 의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조선 주자학의 정치적 성향을 지니면서, 아울러 '實心으로 實學을 강론하고, 실학으로 實事를 실행하는 것이 곧 오늘날의 급선무이다'라고 말한 정조의 經世學의 주자학의 학문성향을 함께 공유했던 주자학자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柳成龍, 柳台佐, 正祖, 朱子學, 豐山柳氏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학문성향 |
| II. 가학전통 | V. 맺음말 |
| III. 생애와 관력 | |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hakyung@aks.ac.kr

I. 머리말

고려 말에 士族으로 성장한 安東 河回의 豐山柳氏는 조선 전기에는 안동지역의 유망한 사족으로 차츰 발전해 나갔다. 이 가문은 16세기에 柳仲郢 - 柳雲龍 · 柳成龍 삼부자를 거치면서 영남학파의 중심에 서는 유망한 가문이 되었다.¹⁾ 특히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한 명재상 류성룡으로 인해 하회와 풍산류씨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풍산류씨는 조선 말기까지 학문과 벼슬이 이어져 영남에서 손꼽히는 名家로 칭송을 받아왔다. 류중영 이후 이 문중은 17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고, 생원진사 입격자는 47명에 이르렀다.²⁾

柳台佐(1763~1837)는 류성룡 이후 忠孝 두 글자를 전승해온 8世의 文獻家에서 태어나 家學을 잘 지키고 몸소 실천을 하였다. 그는 류성룡의 충효와 柳元之의 拙誠을 수용하여 지켰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오로지하여 한번 보면 바로 기억을 했다고 한다. 그는 經學과 朱子學에 정통했고 우리나라 역사의 典故에도 밝았다. 그는 옛날 경전중에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곳도 사색하고 연구하여 터득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는 학자이자 관료로서 정조와 君臣간이면서 師生간으로 학문 토론을 하였다. 李彙載는 류이좌의 행장에서 “시문은 精切하고 簡當하여 오로지 理勝을 주로했다.”³⁾라고 평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류성룡 이후 면면히 이어져 온 류이좌의 家學 전통을 살펴보고, 이어 그의 생애와 宦歷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大學』과 『中庸』, 朱子書 등에 대해 그와 正祖 사이에 이루어진 학문토론의 내용을 주로 검토하여 그의 학문성향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가학전통

류성룡의 學脈은 朱熹와 李滉의 心學의 傳統을 이어 鄭經世에게 전해졌다. 정경세는 尙州 출신이고 류성룡의 셋째아들 柳衿이 상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주를 중심으로 安東 · 義城 · 英陽 등으로 그 학맥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안동 하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맥은 철저히 가학의 형식을 띠고 전수되었다.⁴⁾

류성룡의 첫째 아들 柳柳는 장수도찰방을 지냈고, 사헌부장령에 추증되었다. 그는 깊은 학식과 돈독한 행실이 있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류진은 學行이 뛰어나 家傳의 旨訣을 얻었다고 하였다.

柳元之(拙齋, 鎭安縣監)는 류성룡의 長孫으로 季父 류진에게 나아가 학업을 익혔는데, 주자학을 깊이 연구하여 天人理氣의 오묘함과 仁義性情의 뜻을 깊이 탐구하여 앞서 사람이 아직 밝히지 못한 것을 많이 밝혀 후학에게 알려 주었다고 한다. 그는 이황 이후 義理性命의 설을 잘 정리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1) 안병길, 「풍산류씨 가문의 학문 전통과 가학 계승」,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182~183쪽.

2) 안병길, 「풍산류씨 가문의 학문 전통과 가학 계승」,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183쪽.

3) 『鶴棲文集』 권20, 附錄, 行狀 [李彙載]

4) 권오영, 「병론의 학문 연원」,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12~315쪽; 「풍산유씨의 학맥과 벼슬」 『근대 이행기의 유림』, 돌베개, 2012, 582~595쪽 참조.

류원지는 1657년(효종 8) 아들과 손자에게 할아버지 류성룡으로부터 전해온 遺訓을 말하였다.⁵⁾ 그는 “우리 집은 다른 물건이 없고 오직 忠孝와 清白이다. 비록 어리석어 미치지 못하더라도 항상 골수에 새겨두어라. 너희들이 부지런히 이것을 생각하여야 모름지기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알 것이다. 털끝만큼이라도 만일에 스스로를 속인다면 神明이 나의 곁에서 보고 있느니라.”라고 하였다.

또한 류원지는 ‘拙誠’ 두 글자를 매우 강조하면서 “拙하면 분수에 편안하고 만족할 줄 알게 되어 智巧와 機變의 사사로움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誠하면 자연스럽고 실재를 힘쓰게 되어 外飾을 힘쓰거나 스스로 속이는 병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였다.⁶⁾

柳宜河(愚訥齋, 翊衛司翊贊, 贈司僕寺正)는 류원지의 맏아들로서 류성룡이 忠孝 외에 다른 사업을 가르칠 것이 없다는 말에 의하여 ‘忠孝堂’ 세 글자의 현판을 걸었다. 충효당은 풍산류씨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집이다. 이곳은 책을 읽고 벼를 대접하고 자제들을 가르치는 장소이다. 바로 류성룡이 제시한 忠孝의 가르침을 이 堂號에서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안동의 풍산류씨의 학문과 벼슬을 대표하는 인물은 柳相祚와 柳台佐, 그리고 柳尋春이었다. 특히 류상조와 류이좌는 중형제간으로 같은 집안에서[同室] 1763년(영조 39) 같은 해에 태어나 나이도 같고[同齒], 학업을 같이 익혔고[同業], 또 1794년(정조 18) 같은 해에 문과에 합격하여[同年] 조정에서 같이 벼슬살이를 하면서[同朝] 때로 出處를 같이 하지는 못하기도 했으나 75년 동안 대개 한가지 일도, 한마디 말도 같지 않음이 없었다[同心]고 했다.⁷⁾

柳台佐(예조참판)는 柳師春의 아들이다. 그는 李之億(예조판서)의 외손자이고 李世澤(대사헌)의 손서였다. 그는 7세 때 백부인 柳宗春에게 나아가 공부하기 시작하였는데, 류종춘은 류성룡 이후 집안에서 전해온 家學과 家法을 서술하여 류이좌와 류상조에게 전수하였다.

文忠公(柳成龍)의 道學과 忠勳은 부인과 어린이도 외운다. 그런데 立巖公(柳仲郢)이 만약 임진왜란을 당했다면 또한 文忠의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다. 察訪公(柳裯)은 총명함이 남보다 빼어나 책에 통하지 않음이 없었고 더욱이 性理의 學에 깊었다. 일찍이 ‘홀로 다짐에 그림자에 부끄러움이 없고獨行不愧影, 홀로 잠을 자에 이불에도 부끄러움이 없다獨枕不愧衾’라는 두 구절을 써서 스스로 경계를 했다. 拙齋公(柳元之)은 文忠·修巖(柳軫)의 教導를 받은 외에 愚伏 鄭先生(鄭經世)의 師訓을 받들어 眞知와 實踐으로 요점을 삼았고, 또 拙誠 두 글자로 깊이 마음에 맞음이 있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拙하면 분수에 편안하고 만족할 줄 알아서, 智謀의 교묘함과 臨機應變의 사사로움에 들어가지 않으며, 誠하면 眞에 맡기고 實을 힘써서, 밖으로 달아나고 스스로 속이는 병에 홀려들어가지 않는다. 더욱이 敬 한 글자에 힘을 써서 비록 홀로 있어 放肆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戒謹하고 恐懼하여 權度가 어긋나지 않았다. …(중략)…愚訥齋公(柳宜河)은 食息과 動靜이 典訓에서 떠나지 않았다. 處心과 持己가 엄격하게 정해진 법도가 있었다. 책상 위에 항상 朱子書가 놓여 있었고 글 읽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비록 병으

5) 『拙齋文集』 권7, 書, 寄兒兼示孫兒 丁酉.

6) 『拙齋文集』 권2, 詩, 示兒輩; 『鶴樓文集』 권10, 跋, 敬題族姪彝好所槌先祖拙齋先生九首詩小屏後.

7) 『鶴樓文集』 권20, 附錄, 祭文 [堂姪進翼]

로 누웠더라도 家廟를 향하여 발을 퍼지 않았다. 敎官公(柳後常)은 志操가 굳고 확실했고 處事에 구차하지 않았고, 입으로는 다른 사람의 착하고 그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항상 여러 아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不善을 말하면 마땅히 後患에 어찌하겠는가.’라고 했다. 松羅의 郵館에 우물재공을 뵈러갈 때 말이 절자 걸어갔고 驛의 말을 빌려 타지 않았다. 할아버지 西湖公(柳聖和)은 인자하고 은혜롭고 따뜻하고 어질며, 겸손하고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길렀다. 날마다 책을 대하여 외우고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 매년 마을을 출입할 때 祠廟와 父兄이 있는 곳이라 하여 말을 타지 않았다. 長者와 尊者가 있는 마을이나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지날 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렸다. 豐山大路의 북쪽 언덕에 三龜亭이 있는데 큰길에서의 거리가 五里였다. 멀리서 바라보아 亭子 위에 사람이 있으면 또한 말에서 내렸다. 文忠公 이하의 忌日에는 七日齋戒 三日致齋를 했고 직접 祭需를 살피고 祭器를 씻기도 했다. 원근의 벗의 訃音이 이르면 素食을 하지 않음이 없었다. 관직 생활은 지극히 청렴하였다. 辛亥年(1791)에 크게 흉년이 들어 山陰縣監에서 교체되어 돌아갈 때 봉급쌀 삼백斛을 重記에 적어 인계하여 주었다. 家廟의 자리도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先考府君(柳濤)은 독서를 좋아하고 교훈을 삼았다. 이미 宗祀를 받들에 더욱 공경과 삼감을 다하였다. 祭需와 魚肉과 果品을 반드시 忌日에 앞서 구매하여 하나의 창고에 따로 넣어 두고 제삿날에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 冠服을 입고 직접 제수를 장만하여 이바지하였다. 머리와 꼬리가 있는 것과 껍질과 씨가 있는 따위는 반드시 봉지로 싸서 두고 아이들이나 개와 쥐의 더럽히는 바가 되지 않게 했다. 內資寺의 관원이 되어 만들어 供上하는 것을 감독했고 관복을 벗지 않았다. 膳夫와 掖隸들이 흠치는 것을 통렬히 금했고 삼가 봉지로 싸서 갈무리하는 것을 家祭때와 같이 했다....(중략)...黃澗縣을 맡았을 때 청렴하고 근신했고 속속들이 자세하게 일을 잘 처리하여 모든 폐단이 다 사라졌다. 더욱 興農과 勸農에 힘을 썼다. 이것이 모두 우리 집안의 家學과 家法の 傳受이다.⁸⁾

류이좌는 1831년(순조 31) 자기가 거처하는 廳事의 堂 이름을 和敬堂이라 하였다. 본래 류이좌의 아버지 柳師春이 1797년(정조 21) 수십간의 집을 짓고 ‘萬壽堂’이라 하였는데 그뒤 류이좌가 집을 증축하여 ‘和敬堂’이라 이름을 붙이었다. ‘和敬’이란 말은 류사춘이 작고할 때 류이좌에게 훈계하기를 “매사에 忠孝를 다하고 매사에 반드시 和敬을 지니라.”라고 한데서 따온 것이었다. 류이좌는 『和敬堂記』에서 “忠孝의 편액은 우리 宗家에 이미 걸려 있는 것인데, 和敬 또한 忠孝상에 있어서 같은 도리이다. 和로써 어버이를 섬기면 孝이고 敬으로써 임금을 섬기면 忠이다.”라고 하였다.⁹⁾ 류이좌는 풍산류씨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온 가르침인 忠孝

8) 『鶴樓文集』 권19, 家狀, 伯父贈吏曹判書豐恩君行義禁府都事畏齋府郡家狀. “文忠公道學忠動, 婦孺所誦, 而立巖公若當壬亂, 亦做文忠公事業. 察訪公穎悟絕人, 於書無不通, 尤達性理之學, 嘗書獨行不愧影, 獨寢不愧衾兩句以自警. 拙齋公幼被文忠修嚴教導外, 奉愚伏鄭先生師訓, 以真知實踐爲要, 又以拙誠二字, 深有會焉, 嘗曰拙則安分知足, 不入於智巧機變之私, 誠則任真務實, 不流於驚外自欺之病, 尤用力於敬之一字, 雖在幽獨得肆之地, 戒謹恐懼, 權度不差...(중략)...愚訥齋公食息動靜, 不離典訓. 處心持己, 斬斬有定法. 案上常置朱書, 咿唔不輟. 雖病臥不向家廟展足. 敎官公志操堅確, 處事不苟, 口未嘗臧否人物, 常戒諸子, 曰言人之不善, 當如後患何? 省愚訥齋公于松羅郵館, 馬蹇或步而不借驛騎. 王考西湖公慈惠溫良, 謙謙自牧, 日對方策, 誦讀不輟. 每出入閭里, 以祠廟父兄所在, 不敢騎, 過長者尊者之間衆人之會, 必下馬. 豐山大路北岸, 有三龜亭相距五里, 而望見亭上有人則亦下馬. 文忠公以下忌日, 七戒三齋, 親自省滌. 遠近朋友之訃至, 未嘗不素食. 居官至清. 辛亥大饑, 遞山陰歸, 俸米三百斛, 都付重記, 家廟因席, 亦不許齋來. 先考府君好讀書謹教訓, 既承宗祀, 益致敬慎, 祭需魚肉果品, 必先期求質, 別置一庫, 祭日必早起冠服, 親執供辦. 頭尾之餘皮核之屬, 亦必封置, 不爲兒曹狗鼠所褻污. 爲內資官, 監造供上, 不解冠服. 痛禁膳夫掖隸輩偷竊, 謹藏封餘如家祭時...(중략)...知黃澗縣, 廉謹綜覈, 百弊俱去, 尤用力於勸農興學. 此皆吾家家學與家法之傳受也.”

의 실천 방법으로 和와 敬을 제시하고 있다.¹⁰⁾

또한 류이좌는 20대초에 삼중조인 유규의 宣陵(成宗의 陵) 職所에서 『心經』과 『近思錄』, 朱子書 등의 강의를 받으며 주자학을 공부하였다. 류규는 “修巖(柳軫)·拙齋(柳元之·寓軒(柳世鳴)·主一齋(柳後章)가 발휘하고 愚訥(柳宜河)·晩思(柳世禎)·悔堂(柳世哲)·西湖(柳聖和)의 이어 감이어! 모두 선대에 아름다움을 이었고 후손에게 넉넉함을 드리워주지 않음이 없도다.”라고 하여 위와 같은 가학의 전수의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류규는 “근세에 우리 가문에 主一(柳後章)·西湖(柳聖和) 두 공이 淵源이 있는 家學을 잘 공경스럽게 있었는데, 나(류규)와 畏齋(柳宗春)가 일찍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서로 힘썼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류이좌도 풍산류씨의 家學 전통에 대해 “厓(柳成龍)·拙(柳元之) 두 할아버지가 道學으로 그 빚장을 열었고 愚訥(柳宜河)·西湖(柳聖和)·懶翁(柳濤)이 그 터전을 베풀어 닦았고 府君(柳宗春)의 實德과 實行이 오로지 家法으로 가학을 삼았다.”라고 하였다.¹¹⁾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에 풍산류씨들은 영남유림의 명가로 활동하면서 西人세력과 정치적으로 대적하고 있었으므로 그뒤 벼슬길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웠다. 柳雲龍의 증손인 柳世哲은 1666년(현종 7) 영남 유림을 대표하여 상소를 올려, 기해년(1659년) 효종의 國喪때 입어야 했던 慈懿大妃의 服制에 대해 당시 서인이 주장했던 暮年說을 반박하여 서인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뒤 수차례의 換局을 거치면서 1694년 갑술환국 이후에는 풍산류씨를 비롯한 영남의 인사가 중앙정계의 높은 관직에 진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1776년 正祖가 집권하면서 정치상황은 다소 달라져 갔다.

1792년(壬子, 정조 16)의 영남만인소는 비록 영남 유생들의 주장이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정조의 “念念闡揮”라는 표현에서 보듯 영남 남인들에 대한 그의 정치적 지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풍산류씨들도 정치적 소외에서 벗어나 새로 일어나는 계기가 주어지고 있었다. 바로 1794년(정조 18) 류상조가 文科에 합격하여 典籍과 兵曹佐郎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류이좌도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檢閱이 되었다. 이때 국왕 정조는 직접 제문을 지어 승지를 보내어 류성룡의 家廟에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정조는 류성룡의 두 후손인 류이좌와 류상조가 과거에 나란히 합격해 류성룡의 陰德을 입었으며 예문관검열과 병조좌랑에 임명되었음을 언급하였다.¹²⁾

정조는 류성룡에 대해 “서에 류성룡은 젊어서 퇴계에게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을 만나 전장의 급보가 빈번히 날아들고 공문서가 산처럼 쌓였는데 한편으로 답을 하고 한편으로 사람을 접하는 것이 모두 시의적절하였다.”, “이처럼 재능을 갖추고 이처럼 문장력을 지닌 사람은 가히 시대마다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의 하자를 찾아내려는 다소의 의논이 있더라도 그것은 치우친 마음에서 나온 것이

9) 『鶴棲文集』 권20, 記, 和敬堂記.

10) 河回의 北村 和敬堂 경내에는 ‘須慎窩’라는 집이 있다. 이 이름은 류성룡이 1607년 2월 12일에 지은 시 “勉爾子孫須慎旃, 忠孝之外無事業”에서 ‘須慎’ 두 글자를 따온 것이다.

11) 『鶴棲文集』 권19, 家狀, 伯父贈吏曹判書豐恩君行義禁府都事畏齋府君家狀.

12) 『弘齋全書』 권23, 祭文, 文忠公柳成龍致祭文 甲寅. “煌煌彝鼎, 太常則有. 銘以紀之, 曰文忠柳. 與彼石鼓, 暨厥麟閣. 休美齊匹, 百代不泐. 宣廟中興, 卿食其當. 奔奏禦侮, 在西一方. 以籌以勦, 盡乃心力. 龍馭載返, 鯨波永息. 功垂晉乘, 名重趙呂. 咸諳西崖, 農夫紅女. 世世錄後, 襲爵佩紱. 近閱遺集, 筵燭屢跋. 最聖然者, 城壕方略. 是時兩孫, 金榜聯擢. 喬木之蔭, 翰圉騎郎. 維星有箕, 若接精光. 鹽梅舟楫, 輒起曠想. 馳命嶠南, 予酌卿羹.”

다. 저 혈통은 사람들을 돌아가신 相臣이 처한 시대에 처하게 하고 돌아가신 상신이 맡았던 일을 행하게 한다면 그런 무리는 백 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고 상신의 만분의 일이라도 감당하겠는가.”¹³⁾라고 했다.

이러한 정조의 류성룡에 대한 새로운 평가로 풍산류씨 가문은 중흥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류중춘은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장차 무엇으로 聖恩에 보답할 것이며, 또 장차 무엇으로 우리 조상을 더럽히지 않겠는가.”라고 하고는 집안의 가르침과 선배의 出處를 거론하여 더욱더 힘쓰라고 하였다.

忠孝는 우리 집의 世業이고 拙誠은 우리 집의 家學이니 잃을 수 없다. 충효는 본래 두 가지 이치가 없고 줄성은 어느 곳이든 마땅하지 않음이 없다. 진실로 잘 힘써 생각하고 힘써 행하는 것, 이것이 朝廷에 있어서나 집에 처할 때의 네 글자 符이다.¹⁴⁾

류중춘은 1794년 75세 때 위와 같이 자손들에게 부탁하고, 이듬해 2월 28일 충효당에서 작고하였다. 그 려면 류이좌의 아버지 柳師春도 작고하기 전에 류이좌에게 遺戒하기를 “忠孝는 본디 우리 집이 대대로 지켜온 가르침인데 옛 사람이 忠을 말하고 孝를 말할 때 반드시 盡忠盡孝라고 하니 盡字에 뜻이 있다. 벼슬 살이할 때나 집에 처할 때 그 정성과 힘을 다하도록 하고 또 모름지기 和敬으로 주를 삼아라.”라고 당부하였다.¹⁵⁾ 이와 같이 류중춘·류사춘의 가학전통은 류상조·류이좌를 통하여 그뒤 풍산류씨 후손들에게 잘 전수되었다. 특히 류이좌의 손자인 柳道性은 주희-...이황-류성룡으로 이어지는 주자학의 敬의 전통을 이어받고 아울러 류성룡의 忠孝, 류원지의 拙誠, 그리고 증조부 류사춘과 조부 류이좌의 和敬의 가학전통을 잘 계승하여 나갔다.¹⁶⁾

Ⅲ. 생애와 관력¹⁷⁾

류이좌는 1763년(영조 39) 12월 4일에 아버지 柳師春(1741~1814, 침지중추부사, 증이조참판)과 어머니 延安李氏(1737~1815, 판서 李之億의 딸) 사이에서 외가인 한성부 南部의 羅洞에서 태어났다. 그는 돌이 되지 않아 이미 말을 알아들어 외조부인 이지역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柳家の千里駒이다. 西厓 어른에게 후손이 있구려.”라고 했다.

13) 『弘齋全書』 권171, 日得錄 11, 人物 1.

14) 『鶴樓文集』 권19, 家狀. 伯父贈吏曹判書豐恩君行義禁府都事畏齋府君家狀. “忠孝는吾家世業, 拙誠은吾家家學, 不可失也. 忠孝本無二致, 拙誠無處不當, 苟能力念力行, 是迺立朝處家四字符也.” 柳進翰은 忠孝와 拙誠 대신에 忠孝와 謙恭을 풍산류씨가 의 근본과 기초라고 말하고 있다(『鶴樓文集』 권20, 부록, 祭文[堂姪 進翰]).

15) 『鶴樓文集』 권19, 家狀. 伯父贈吏曹判書豐恩君行義禁府都事畏齋府君家狀.

16) 『石湖文集』 권7, 附錄, 墓碣銘 并序.

17) 이하 서술은 柳台佐의 行狀(李彙載), 家狀(柳祔陞), 墓誌銘(柳祔陞) 및 『承政院日記』에 나오는 류이좌의 관력 기사와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 『학서집』 解題(元周容, 2012) 등을 참조하였다.

류이좌의 본관은 豐山이다. 자는 士鉉고 호는 鶴棲로 만년에는 聾啞라고 했다. 이름은 처음에 祚字 항렬을 따라 台祚(태조)로 지었다가 꿈의 徵兆로 인해 ‘台佐(태좌)’로 고쳤다.¹⁸⁾ 그러다가 언젠가 정조가 류태좌를 만난 자리에서 ‘별 태(台)자를 ‘나 이(台)’자로 읽으면서, “卿은 나를 도와 달라.”라고 하여 ‘이좌’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¹⁹⁾

류이좌의 부인은 眞城李氏로 통덕랑 李龜祿의 딸이고 대사헌 李世澤의 손녀이다. 繼娶는 平山尹氏로 士人 尹相麟의 딸이다.

류이좌는 어려서부터 천성이 학문을 즐겨하였다. 그의 어머니 연안이씨는 어질고 유식하여 어린 아들을 품속에 안고서 경전의 글자와 구절을 가르쳐주었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고금의 인물의 嘉言과 善行을 얘기해주기도 했다.²⁰⁾ 그런가하면 아버지 류사춘은 자식의 공부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근태를 점검하여 각고의 면려를 하게 했다.

류이좌는 1769년(영조 45) 7세에 백부 柳宗春의 문하에 나아가 류종춘의 아들인 류상조와 함께 공부하였다.²¹⁾ 백부의 문하에서 文義가 일찍 통달하자 백부가 기이하게 여겨 좌우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다. 그는 각고의 노력을 하여 배운 것을 반복하여 외웠다. 류종춘은 선대부터 집안에 전해온 心學의 요점을 열거하여 아침저녁으로 류이좌에게 얘기해주면서 큰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

또한 류이좌는 약관의 나이에는 과거시험장에서 이름을 날렸다. 일찍이 그는 외조부 이지역의 생질인 蔡濟恭(류이좌의 어머니와 내외종간)의 문하에 나아가 駢儷文을 지어 보이자 체제공은 “이름이 난 것이 虛가 아니구나.”라고 하고 그 文才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체제공은 류이좌에게 “家學을 더욱 힘써 정진하여 선조의 업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가하다.”라고 했다.

류이좌는 삼종조인 柳滄의 문하에 나아가 經史의 句讀를 배웠고²²⁾ 科體를 공부하였다. 류규는 일찍이 류이좌에게 말하기를 “독서는 格物 중의 한가지 일이다. 요점은 순서를 따라서 점점 나아가 익숙히 읽고 정밀하게 생각을 하여 글자는 그 訓을 구하고 구절은 그 뜻을 찾아서 앞에서 터득하지 못했으면 뒤에서 감히 구하지 말며, 여기에서 통하지 못했으면 저기에 감히 뜻을 두지 말아서, 먼저 모름지기 익숙하게 복습하고 음미하여 그 말이 모두 내 입에서 나온 것처럼 하고 이어서 정밀하게 생각하여 그 뜻이 모두 내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하여야 한다.”라고 했다.²³⁾

1791년(정조 15)에 류규는 류이좌에게 宣陵 直所의 齋室이 조용하다고 하면서 와서 독서를 하라고 했다. 이에 류이좌는 류규의 근무지에 가서 『心經』과 『近思錄』 및 朱子書 등을 배웠다. 이 당시에 류규는 류이좌

18) 『古文書集成』 20 - 屏山書院篇 -, 屏山書院通讀會案, 儒生;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3월 10일(정유) “敎柳台佐曰, 爾之行列, 何其不同耶? 台佐曰, 仍夢兆而改名矣.”

19) 『承政院日記』에는 1783년 11월 17일부터 1792년 5월 7일까지의 기사에 柳台祚로 쓰다가 1794년 2월 21일 기사부터 柳台佐로 쓰고 있다. ‘태좌’를 ‘이좌’로 바꾼다는 것은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그런 말이 전해 오고 있다고 말하며 ‘이좌’로 읽고 있다. 또한 필자는 1996년 10월 11일에 李家源 선생으로부터도 같은 말씀을 들었다.

20) 『鶴棲文集』 권16, 墓誌銘, 先妣贈貞夫人李氏墓誌.

21) 『鶴棲文集』 권20, 附錄, 祭文〔堂兄相辭〕

22) 『鶴棲文集』 권12, 祭文, 祭三從大父臨汝齋公文.

23) 『鶴棲文集』 권17, 行狀, 三從大父臨汝齋公行狀.

에게 명예를 가까이하지 말고 靜坐하여 未發前의 氣象을 터득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일찍이 宣陵 齋室에서 한가하고 고요할 때에 台佐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延平 李先生(이름은 侗)이 羅豫章(이름은 從彦, 자는 仲素)을 좇아서 공부를 했는데 講誦을 한 나머지에 종일 危坐를 하여 喜怒哀樂의 未發前의 氣象을 증험하게 하여 이른바 中을 구하게 했다. 이와 같이 한 것이 대개 오래되어 天下의 大本이 진실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개 천하의 理가 여기에 말미암아 나오지 않음이 없으니 이미 근본을 터득했으면 무릇 여기에서 나온 것은 비록 品節이 만가지로 다르더라도 該攝하고 通貫하지 않음이 없고 각각 조리가 있어 하나도 그 속마음을 얻지 아니함이 없다. 이로 말미암아 操存이 더욱 견고해지고 涵養이 이미 익숙해지면 두루 응하고 모서리까지 마땅하여 發함에 반드시 절도에 맞을 것이다. 이것이 연평씨가 예장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고 退溪(李滉)와 西厓·鶴峯(金誠一)의 연원이 나온 곳이다. 너는 기억을 하라.’라고 하였다.²⁴⁾

류이좌는 류규가 李侗이 靜坐를 통해 未發氣象을 보라고 한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그래서 그는 喜怒哀樂의 未發前에는 다만 本體를 涵養할 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한편 1792년(정조 16)에 영남 유생들은 李堦를 疏首로 하여 유규·李世胤·金翰東 등 1만 57명²⁵⁾이 사도세자의 원통함을 신원하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주도한 노론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이때 류종춘은 조카인 류이좌에게 “이는 嶺南의 큰 의리이다. 너는 힘써 가서 참여하라.”라고 하여 그해 봄에 영남 유생들과 함께 영남만인소에 참여하였다. 류이좌는 이해 윤4월 23일에 이우 등과 함께 도성에 들어갔다. 이어 그는 26일에 疏任의 分定에 金宗華·金熙周와 함께 寫疏가 되었다.²⁶⁾ 그는 정조가 내린 임오의리를 闡揮하라는 諭旨를 생각하여 『闡揮錄』을 저술하였다.²⁷⁾

1794년(정조 18)에 사촌형 류상조가 알성 문과에 합격하였고, 류이좌도 같은 해 봄에 문과에 합격하였다.²⁸⁾ 류이좌는 자신의 과거합격이 부모가 積德을 하고 가르쳐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내 진성이씨의 內助의 힘도 크다고 말했다.²⁹⁾

정조는 과거에 급제한 류이좌를 入侍하게 하고 먼저 “西厓에게 몇 세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류이좌

24) 『鶴樓文集』 권17, 行狀, 三從大父臨汝齋公行狀. “嘗於宣齋閒靜之時, 語台佐, 曰昔延平李先生從羅豫章學, 講誦之餘, 危坐終日, 以驗夫喜怒哀樂未發前氣象, 而求所謂中. 若是者蓋久之, 而知天下之大本, 真在乎是也. 蓋天下之理, 無不由是而出, 既得其本則凡出於此者, 雖品節萬殊, 莫不該攝洞貫, 各有條理, 無一不得其衷, 由是而操存益固, 涵養既熟, 則泛應曲當, 發必中節, 此延平氏所傳受於豫章, 而退陶厓鶴淵源之所自來也, 汝其識之.”

25) 『闡揮錄』(한국국학진흥원 소장) 5월 7일자에는 疏錄에 10,386인, 5월 19일에는 11,365인으로 되어 있다.

26) 『俛庵集』 別錄上, 壬子日記 疏廳錄壬子閏四月

27) 영남유생들은 1792년의 영남만인소에 대해 정조가 내린 批答의 “爾等毋憂義理之不明, 刑政之不學, 而惟予本意之愈晦愈隱, 是懼而是恐, 交相告戒, 念念闡揮, 則爾等嶺土搢紳章甫之功也.”에서 ‘念念闡揮’라는 표현이 정조의 진정한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했다(『弘齋全書』 권43, 教4 嶺南儒生李堦等疏批). 『闡揮錄』는 1792년 3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영남만인소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류이좌가 직접 기록한 생생한 자료이다.

28) 현재 류이좌의 文科敎旨가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교지에 “敎旨 幼學柳台佐文科丙科第五人及第出身者 乾隆五十九年三月初十日”로 기록되어 있다(『풍산류씨 화경당(복춘덕)』, 한국국학진흥원, 2014, 40쪽).

29) 『鶴樓文集』 권12, 祭文, 祭亡室貞城李氏文.

는 “팔세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정조는 “류상조와는 몇촌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류이좌는 “사촌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정조는 류이좌에게 얼굴을 들게 하고 류성룡의 후손인 중형제 두 사람이 나란히 과거에 합격했다고 칭찬을 하며 류이좌의 외가와 처가에 대해 물었다. 류이좌의 대답이 끝나자 정조는 바로 假注書에 임명하여 翰林圈點에 참여하게 하고 “眞翰注臣”이라고 하였다.³⁰⁾ 그리고 聞喜宴을 베푸던 날에는 정조가 직접 제문을 지어 류성룡의 사당에 승지를 보내어 賜祭하게 했다. 정조는 그 사제문에서 “喬木의 그늘에 翰圈(류이좌)과 騎郎(류상조)이 출생했네.”라고 했다. 한편은 류이좌를 가리키고, 기량은 류상조가 이에 앞서 특명으로 병조좌랑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었다.

1794년 12월에 류이좌가 고향 안동으로 내려갈 때 정조는 『朱書百選』 두 질을 가져가서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 보관하도록 했다. 그리고 또 한 질을 류이좌에게 선사하면서 “이 책은 그대가 공경스럽게 받으라.”라고 하였다. 류이좌는 정조가 준 『주서백선』을 반복하여 읽고 익혔다. 그는 1795년 1월 22일에 도산서원에, 2월 12일에는 옥산서원에 가서 『주서백선』을 전달하여 봉안하게 했다.³¹⁾

류이좌는 1796년(정조 20)에 정조가 親試로 『大學』의 明德을 밝힌대(明明德)는 구절에 대해 질문을 하자 본체의 虛靈의 妙함을 추구하고 先儒들이 밝힌 뜻을 인용하여 깊이 있게 분석을 하여 명백하게 대답했다. 이에 정조는 비답을 내려 “已發未發을 발휘했으니 비로소 영남학자가 實地에 힘을 쓴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鼠皮로 만든 耳掩 하나를 하사했다. 그리고 도승지 李鼎揆에게 말하기를 “류이좌는 문학이 매우 아름답고 또 그의 몸가짐도 簡正하니 더욱 귀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어 『中庸』을 가져와 강론하도록 하였다.³²⁾ 류이좌는 정조의 질문에 대해 理氣, 性命으로부터 體用과 動靜에 이르기까지 중황으로 해설을 하고 단락마다 수만 언에 걸쳐 답을 했다.

류이좌는 1798년(정조 22) 7월에 주서가 되어 敎命과 章疏의 출납 등에 대해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업무를 잘 처리하였다. 10월에 승정원의 院隸가 술주정을 하며 丹鳳門에 들어간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通津에 유배되었다가 19일 만에 석방되어 복직하였다.

류이좌는 1799년(정조 23) 10월에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이해 정조가 經書講說을 지어 올리라는 명을 내리자, 류이좌는 四書와 六經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서와 程朱의 여러 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500여 조항에 걸쳐 10월 20일까지 매달 보름전과 보름후로 각각 50여조씩 강설을 지어 올렸다.³³⁾ 그 책이 바로 「大學故寔」, 「朱子大全故寔」, 「國朝故寔」 등이다.

이해 7월에 류이좌는 정조의 병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울로 올라가다가 경기도 이천에서 정조가 逝世했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지방관의 경우에 因山의 賻儀는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이 관례였는데, 류이좌는 자기의 봉급으로 부의를 내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정조에게 자신의 아주 작은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하였다.

30) 류이좌가 승정원에 근무하면서 八道の 문서가 날마다 쌓였는데 그가 민첩하게 빨리 쓰기를 流水처럼 하여 정조가 매번 훌륭하다고 격려하였고 ‘飛注書’라고 일컬어졌다고 한다(『鶴樓文集』 권20, 附錄, 祭文 [弟詰祥]).

31) 『百世隕結錄』 上(한국국학진흥원 소장).

32) 『百世隕結錄』 上.

33) 『鶴樓文集』 권4, 書, 上大人 己未.

류이좌는 이해 겨울에 정조의 빈소에 나아가 조문을 하고 抄啟文臣들과 서로 마주보고 통곡하고는 돌아와서 1년 동안을 素食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조가 逝世한 후에 초계문신 때 講製한 글과 정조의 恩諭를 모아 3책을 편성하여 책 이름을 『百世隕結錄』이라 하였다.³⁴⁾ 류이좌가 임기를 마치고 부역을 떠나는 날에 백성들은 그가 탄 수레를 잡고 길을 막아 牧民官을 떠나보내는 情을 아쉬워하였다.

류이좌는 1800년(정조 24) 2월에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이해 3월에 그는 특명으로 부여현감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임지에 가서 청렴하고 淸慎하였으며, 제방을 수축하고 묵은 토지를 개간하는 일을 위해 按使에게 청하여 두어 고을의 役丁을 동원하고 또 노는 인력을 모집하여 몇 달이 되지 않아 완성을 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부여현의 逋欠이 6, 7千斛이 되었는데 조치하여 해결을 했고 안사에게 청을 하여 穀總을 감면해주었다.

류이좌는 1802년(순조 2) 1월에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고, 11월에 부수찬이 되었고, 12월에 홍문관 부교리에 전임되었으나 친병 때문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1803년(순조 3) 4월에 사간원 헌납이 되었고, 5월에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다. 이어 6월에 北評事에 임명되었다. 그는 부모의 곁을 떠나 천리 먼 길을 가는 것을 어려워하며 아버지에게 사정을 여쭙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임금의 命에 평탄하고 험한 것을 가리지 않는 것이 신하의 節操이다. 늙은 아버지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했다.

류이좌는 1803년 9월에 북평사에 부임하는 길에 金剛山을 유람하고 「金剛錄」을 지었다. 당시 함경도 지방의 풍속이 利를 주로 추구했으므로 학문을 일으키고 후진들을 권장하려고 하여 養士廳을 고쳐 세우고 학업의 경비를 마련하고 여러 고을의 선비들을 선발하여 글을 읽도록 하고 학업성적을 점검하여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을 가려서 일정한 방식으로 상을 주니 선비들이 모두 흥기하고 분발하였다. 북쪽에는 평소 책이 부족하였는데 류이좌는 유생을 뽑아 『朱書百選』과 『雅誦』, 『家禮』를 베껴 써서 齋에 보관하게 하여 학습의 바탕으로 삼게 했다.

류이좌는 1804년(순조 4) 체직이 되어 돌아와서 7월에 사헌부 장령, 8월에 부교리, 9월에 성균관 사성, 10월에 홍문관 수찬,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그는 이듬해 3월에 사헌부 장령과 집의에 임명되었다.

류이좌는 1806년(순조 6) 1월에 사간원 사간으로 전직되었다가 이듬해 2월에 성균관 사성이 되었고 3월에 사헌부 집의를 거쳐, 6월에 안변부사가 되었다. 당시 안변의 무기고에서 화재가 나서 군기가 모두 타버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논의를 하여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류이좌는 民力을 동원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고 工匠을 소집하여 몇일 동안에 소실된 무기고를 복구하고 병기를 다시 만들게 하였다. 당시 좌의정 李時秀는 함경감사 李晚秀가 비변사에 보고한 류이좌의 牒呈을 검토하고 순조에게 자세한 상황을 보고하였다.³⁵⁾ 이시수는 류이좌의 행정 처리 능력을 보고는 감탄하여 “그의 재간은 나라의 國事를 주간할 만하다.”라고 했다.

34) 『百世隕結錄』은 류이좌가 7년간 內閣講製抄啟文臣으로, 2년간 記注官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 류이좌는 우선 14대조 柳從惠로부터 그의 父 柳師春, 외조부 李之億에 이르기까지 직계 조상의 벼슬 등을 간략하게 적고, 이어서 1792년 4월 18일 正言 柳星漢이 疏를 올린 내용부터 기록을 하고 있다.

35) 『承政院日記』, 순조 7년 11월 20일(정사).

한편 당시 안변의 鶴浦社에서는 여러 유생들을 위해 居接을 하여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글짓기 공부를 주로 하고 있었다. 류이좌는 부임하여 그간의 이러한 과거시험위주의 절차를 고쳐 『近思錄』을 과목으로 정하여 10여 일을 講學하였다. 그는 訓詁와 句讀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일상에 가깝고 평이한 도리를 절실히 묻고 생각하는 공부의 중요성을 이 『근사록』의 강학을 통해 시행하려고 하였다. 그는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표현하였다.

학문을 함은 이치를 궁구함에 있고	爲學在窮理
독서를 함은 정밀을 다하길 힘써야지	看書務致精
음과 구두를 이해했다고 말하지 말라	休言音讀解
모름지기 근사의 이름을 체득하게나	須體近思名 ³⁶⁾

당시 류이좌에게 『근사록』을 배운 李培春 등 10여 명은 류이좌에게 「鶴浦社養士契節目」을 만들어주기를 청하였다.³⁷⁾

류이좌는 1809년(순조 9) 5월에 사간원 헌납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와 9월에 사간이 되었고, 11월에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고 이듬해 7월에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류이좌는 1811년(순조 11) 3월에 군자감 정이 되었으나 친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11월에 홍문관 수찬이 되었고 이어 교리에 임명되었다. 당시 평안도 가산군에서 李禧著가 군사를 일으켜 군수를 죽이고 여러 고을을 연달아 함락시키니 조정에서 사무가 많아져서 왕복하는 문서가 번잡했는데 그는 홍문관에 있으면서 지체함이 없이 응접하였다.

류이좌는 1813년(순조 13) 휴가를 받아 고향 안동에 내려가 지내고 있었다. 그는 죽선조인 柳世鳴이 淸名과 直道로 홍문관과 湖堂에 이름이 빛났는데 그 후손이 끊어져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여러 족친들과 상의를 하여 花樹堂의 서남쪽에 別廟를 세우고 그뒤 遺文을 모아 유고를 편찬하고 묘표를 세워주었다.³⁸⁾

류이좌는 이해 11월에 홍문관 부교리가 되어 경연에서 『小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傳』, 『書傳』, 『聖學輯要』, 『國朝寶鑑』 등을 순조에게 강의하였다. 이때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순조가 경연에 자주 나오게 되어 하루 동안에 進對한 횟수가 십여 차례에 이르렀다. 당시 동료들은 모두 싫어서 회피하면서 병을 핑계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나 류이좌는 한번 당직에 들어가면 언제나 피로함을 말하지 않았고 발이 부어 신을 신을 수가 없고 氣가 결핍하여 걸음을 걸을 수 없었으나 17일을 순조에게 독대하였으니 동료들이 모두 그를 칭찬하여 ‘진정한 시강관’이라고 하였다. 그때 정승이 감탄하기를 “오늘날 조정에 一心으로 奉公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오직 류학사 한사람 뿐이다.”라고 하였다.

류이좌는 얼마 뒤 시강원 필선으로 옮겼다가 이해 겨울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령 자리를 조정에 요청

36) 『鶴樓文集』 권20, 附錄, 家狀(柳祈陸).

37) 『鶴樓文集』 권9, 序, 安邊鶴浦社養士契節目序.

38) 『鶴樓文集』 권4, 書, 答江阜族叔 癸酉·乙酉; 권10, 雜著, 寓軒先生別廟立議; 권12, 奉安文, 寓軒先生別廟奉安文; 권14, 墓碣銘, 弘文館校理寓軒柳先生墓碣銘 并序.

하여 현풍현감에 임명되었다. 그는 1814년(순조 14) 1월에 부모를 모시고 현풍현에 부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병이 나서 3월에 관아에서 작고하자 고향으로 返葬을 했다. 이듬해 4월에 어머니상을 당하였는데 아버지 상례와 마찬가지로 효성을 다하여 상례를 치렀다.

류이좌는 1817년(순조 17) 11월에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이해 屏山書院에서 채제공을 위해 疏를 올리자는 논의를 발하였다. 이에 류이좌는 金熙周에게 편지를 보내어 영남이 굳게 지킬 것은 채제공이 천명하여 발위한 義理를 다시 천명하는 소를 올리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³⁹⁾

1818년(순조 18) 류이좌는 채제공은 義理의 宗主이고⁴⁰⁾ 그의 大義는 해와 별처럼 천추에 비치고 있다고 했다.⁴¹⁾ 그러면서 채제공이 천명하여 발위한 의리를 다시 천명하는 상소문을 기초하였다. 그러나 당시 屏山書院(풍산류씨)과 泗濱書院(의성김씨)의 士論이 분열되어 추진에 난관이 있었던 것 같다.⁴²⁾ 이해 6월에 류이좌는 사헌부 집의가 되었고 8월에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다.

류이좌는 1819년(순조 19) 3월에 홍문관 수찬이 되어 경연에 참여하였다. 그는 6월에 홍문관 교리가 되었고, 8월에 성균관 사성이 되었다. 그는 翼宗의 嘉禮때에 宣敎官으로 참여하였고, 10월에는 통정대부에 승진되었다. 11월에는 예조참의에 임명되었다.⁴³⁾

류이좌는 1820년(순조 20) 2월에 김해부사에 임명되었다. 김해부에서는 5, 6년 전인 갑술년(1815)과 을해년(1816)에 큰 흉년을 만나 거주하는 백성들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軍布와 糶糴이 빈장부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또한 무기고의 병기도 녹이 슬어 쓸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류이좌는 心力을 다하여 처리하고 편의에 따라 조치하니 일년만에 도망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吏胥들도 모두 두려워하고 온갖 피폐했던 일들이 모두 정리되었다. 또한 김해 경내의 忠孝, 貞烈, 行誼가 드러난 인물을 드러내어 살피고 넉넉하게 대해 주었다. 또 養士齋가 관부의 뒤에 있어서 선비들이 조용히 공부하는 장소로는 불편했기 때문에 이를 성 밖에 이迁하고⁴⁴⁾ 이서들이 점유한 양사재의 토지를 모두 조사하여 양사재에 귀속시켰다. 그리고 읍내의 文士들을 뽑아 그들이 양사재에서 생활하면서 강학을 하게 했다.

19세기 초부터 상주에서 鄭經世의 문집 別集과 年譜를 간행하려는 일이 추진되고 있었다. 1821년(순조 21)에 정경세의 후손인 鄭象履 등은 『愚伏集』의 原集에서 빠진 글과 연보 등을 수록한 『우복집』 별집 8권 4책을 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연보에 ‘厓門授受’의 표현이 없어 류이좌는 중형 류상조에게 편지를 보내어 병산서원과 풍산류씨는 『우복집』 별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⁴⁵⁾ 그뒤 1825년 5월 12일에 鄭象漸·鄭象履 등은 道内の 여러 長老에게 單子를 내어 연보를 편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바로 그 다음날 류상조·류이좌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했다.⁴⁶⁾ 실제 1829년에 병산서원에서는 『우복집』 별집의 범례 첫권과

39) 『鶴樓文集』 권4, 書, 與金公穆 丁丑.

40) 『鶴樓文集』 권4, 書, 答疏廳會中 戊寅.

41) 『鶴樓文集』 권12, 祭文, 祭樊巖蔡文肅公文 改葬時 代士林作.

42) 『鶴樓文集』 권4, 書, 與金公穆.

43) 『承政院日記』 순조 19년 11월 16일(갑술).

44) 1820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3월에 완공하였다. 宋允增·曹錫權·許儼·盧并文이 營造의 일을 관할하였다, 齋는 모두 5架, 堂이 6間, 東西 夾室이 각 2間, 廚의 옆에 庫舍를 갖추었다(『鶴樓文集』 권10, 記, 金海養士齋移建記).

45) 『鶴樓文集』 권4, 書, 上豐安君 辛巳.

연보를 돌려 보내버렸다.⁴⁷⁾

1822년(순조 22) 4월에 류이좌는 김해부사에서 물러나 서울로 돌아왔다. 이해 6월에 그는 동부승지가 되었고, 12월에 시강원 보덕이 되었다. 이해에 사촌형 류상조와 상의하여 하회에 義庄을 설치하였다. 이 의장 설립을 통해 하회 풍산류씨의 모든 친족의 還餉의 稅에 대비하게 하고 가난한 종족들을 진휼하여 구제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물며 우리 柳氏는 대대로 國恩을 받아 집안에서는 忠孝를 傳하고 벼슬을 살면서는 清廉을 기르고 부끄러움을 멀리하여 정성과 부지런함으로 일을 맡는다. 집안에 처함에는 절렬함을 지키고 분수에 편안해한다. …(중략)…公家에 賦와 役을 내는데 還餉이 가장 중요하다. 드디어 문중 내의公私의 약간의 돈과 곡식을 모아서 해마다 糶糴을 할 때에 조달하는 비용을 담당하게 하여 그 이름을 義庄이라고 하니 매우 성대한 일이다. 비록 그러하나 庄을 義로써 이름을 삼았으니 그 뜻이 매우 정중하다. 무릇 우리 約에 동참하는 사람은 진실로 잘 지켜서 훼손하지 말지어다.⁴⁸⁾

류이좌는 1823년(순조 23) 6월에 다시 시강원 보덕이 되었다. 그러나 9월에 김해부사 재임시절에 漕船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로 하옥되었다가, 지병으로 곧 석방되었다. 이해 류이좌는 韓致應에게 편지를 보내어 채제공이 임오의리를 힘써 지킨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밝게 알고 있고 여론이 크게 지지하고 있으니 성심으로 순조에게 건의를 하여 老論의 잘못된 논의를 돌리게 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⁴⁹⁾

1824년(순조 24) 여름에 안동에서 채제공의 『樊巖集』이 간행되었다. 채제공은 영조의 金縢의 뜻을 받아 의리를 힘써 지키고 淸議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노론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왔다. 류이좌는 채제공의 문자는 전함이 없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영남의 士友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그의 문집을 간행을 하고 그 책판은 鳳停寺에 보관하였다.⁵⁰⁾

류이좌는 1825년(순조 25) 8월에 시강원 보덕이 되었는데, 사직소를 지어 순조에게 聖學을 힘쓰기를 건의하려고 했으나 관직이 교체되어 올리지는 않았다. 이해 9월에 동부승지, 우부승지가 되었고 이어 사옹원 정이 되었으나 바로 교체가 되었다. 이듬해 5월에 대사간이 되었고 12월에 보덕이 되었다.⁵¹⁾

1828년(순조 28) 겨울에 류이좌는 다시 보덕이 되었고, 이듬해 1월에 도총부 부총관에 승진되었다. 그는 2월에 焚黃을 하기 위해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갔다. 이해 8월에 류상조가 동지정사로 燕京에 갈 때 류이좌는 평일에 집안에서 함께 공부했고 조정에서 出處를 같이한 대략을 서술하여 百句의 시를 지어 전송하였

46) 『鄭經世 史料精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324쪽.

47) 『鄭經世 史料精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320·328쪽.

48) 『鶴樓文集』 권9, 序, 義庄節目序. “況惟吾柳世受國恩, 家傳忠孝, 居官則長廉遠恥, 以恪勤事任, 處家則守拙安分…(중략)…公家賦役, 還餉爲最, 遂聚門內公私如千金穀, 以爲逐年糶糴時, 擔當措備之需, 名之曰義庄, 甚盛學也. 雖然, 庄之以義爲名, 其義鄭重. 凡我同約之人, 果能格遵而勿毀之否乎.”

49) 『鶴樓文集』 권4, 書, 與韓粵山致應 癸未.

50) 류이좌는 1821년 蔡弘遠에게 보낸 편지에서 채제공의文稿 교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鶴樓文集』 권4, 書, 與蔡參判遞叔弘遠 辛巳 別紙).

51) 『鶴樓文集』 권4, 書, 與朴熙彦 丙戌.

다. 류이좌는 11월에 한성부 우윤에 임명되었는데, 12월 19일에 고향을 출발하여 25일에 서울에 들어와서 29일에 肅拜를 하였다.⁵²⁾

류이좌는 1830년(순조 30) 2월에 승정원 우승지가 되었고, 6월에 예조참판이 되었고, 11월에 호조참판으로 옮겼으나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류이좌는 1831년(순조 31)에 동지경연사, 동지돈녕부사, 동지의금부사에 임명되었다. 이해 7월 7일에 그는 鄭宗魯에 대해 ‘이른바 天民의 先覺’이고 ‘聖代의 遺逸’이라고 하면서 爵秩을 높일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⁵³⁾ 이해 겨울에 상주를 중심으로 한 江右 士林이 鄭經世의 『愚伏年譜』에서 ‘厓門授受’ 조항을 논의하여 바르게 하려고 류이좌를 맞이하여 일을 추진하게 했다. 그전의 『우복연보』에 성글고 빠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士論이 류이좌에게 위촉하여 개정을 하기 위해서였다.⁵⁴⁾ 그리하여 이듬해 8월 24일에 道南書院에서 도회를 열었는데, 류이좌는 『우복연보』를 따로 편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9일 동안 연보 한 권을 완성하였다.⁵⁵⁾

류이좌는 이해에 거처하던 廳事를 수리하고 ‘和敬’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는 “충효당이란 편액은 우리 宗家에서 걸어놓은 것인데, 화경당도 충효당과 똑같은 의미이다. 온화한 태도로써 아버이를 섬기면 효도가 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임금을 섬기면 충성이 되니 화경으로써 堂楣에 걸어놓고는 경계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甲戌年(순조 14, 1814)에 先君께서 돌아가시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孝道를 다하지 못한 마음(風樹之哀)이 하늘과 땅에도 미칠 수 없었고 집도 또한 약간 오래되어 기울고 퇴락하였다. 나는 선군의 자취가 서려있는 이 집을 보전하여 지키지 못할까 두려웠다. 이에 마음을 다하여 重修할 때 썩고 손상된 기둥과 들보 서까래만을 고치고 거처하는 방들은 더 넓히지 않았다. 공사를 마침에 주위 사람이 청하기를 전일에 頌祝한 萬壽堂이라는 堂號를 扁額으로 걸자고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나의 집은 그 편액이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또한 전일의 편액은 北堂의 萬歲의 祝願을 생각하고 생각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선군께서 돌아가신 뒤인 오늘에 감히 그대로 편액으로 걸 수 없다. 꼭 편액으로 걸게 해야 한다면 특히 선배들의 훈계한 말을 편액으로 걸어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勉勵하고 후세 자손들을 訓戒하는 것이 선군의 遺志를 계승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겠는가.

선군께서 돌아가실 때 不肖에게 훈계하여 말씀하시기를 ‘每事에 忠孝를 다하고 매사에 반드시 和敬을 지니라.’라고 하셨으니 아! 진실로 지극한 교훈이었다. 그것을 받들어 듣고 마음에 새겨 出入動靜에

52) 『鶴樓文集』 권4, 書, 上豐安君 庚寅.

53) 『承政院日記』 순조 31년 7월 7일(정사).

54) 『愚伏別集』 권4 - 권7, 附錄 『愚伏年譜』 庚辰萬曆八年, 宣祖大王十三年 先生年十八歲.

55) 『鄭經世 史料精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322쪽. 이 ‘厓門授受’ 논란은 柳鄭 兩門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1898년에 류이좌의 손자인 柳道性이 다시 제기하여 정경세의 후손에게 우복연보에 “八年庚辰先生年十八歲○執贊請業于西厓柳先生門”으로 기록해 주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경세의 후손들은 執贊 2자, 別號(西厓) 2자, 門 1자를 빼겠다고 했다(『鄭經世 史料精選』 332, 336쪽). 현재 『愚伏別集』 권4 - 권7, 附錄 『愚伏年譜』 庚辰萬曆八年, 宣祖大王十三年 先生年十八歲조항에는, “補謁西厓柳先生, 受爲學之序. 墓誌云, 西厓柳文忠公知州事, 勸課多士, 公實實然執禮請益, 自是涵而飫之, 月有所益云.”이라고 追補되어 있다.

항상 무너뜨릴까 두려워하였으나 마음가짐이 확고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客氣를 버리지 못하여 관직에 있을 때 廉恥를 길러 恥辱을 멀리하는 풍습을 잃어버렸고 祭祀를 받을 때 齋戒하고 밝게 하여 살아계시는 것처럼 모시는 정성이 없었으며 평상시 사람을 접함에도 거칠고 실수가 많았으니 어찌하겠는가. 이러한 것이 모두 忠孝와 和敬의 반대였다. 五十살에 비로소 허물을 알았다는 蘧瑗의 말을 아직까지 따르기가 어려웠는데에도 어느덧 나이가 致仕에 임박하였으니 餘生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忠孝라는 현관은 우리 宗家에서 이미 편액으로 걸었으며 和敬이라는 글자도 충효와 같은 도리이다. 和로써 아버지를 섬기면 孝가 되고 敬으로써 임금을 섬기면 忠이 되나니 堂에 편액으로 걸어 아침저녁으로 우러러보고 追慕하면서 경계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붙이면 집안이 화목해지고 妻子가 즐겁게 되며 內외의 族戚과 親疏간의 賓客들도 꺼리지 않을 것이니 선군께서 남기신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⁵⁶⁾

1832년에 류이좌는 『西厓集』의 개간을 위해 간행본을 수정하고 世系 및 賜祭文을 年譜에 넣고자 하였다.⁵⁷⁾ 그리하여 1834년 가을에 『서애집』이 重刊되었다.⁵⁸⁾

류이좌는 1835년(헌종 1)에 도총부 부총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 誦讀하던 주희의 글을 모아 『記誦錄』을 편찬했고, 漢·宋 이후 여러 先儒들의 格言과 우리나라 先正들의 유명한 章奏를 모아 『恭敬編』을 엮었다. 그는 『공경편』의 卷首에 “자기 임금에게 하기 어려운 일을 하도록 권하여 요순과 같은 성군이 되게 하는 것을 恭이라고 하고, 善을 개진하여 邪心を 막는 것을 敬이라고 한다. 늙어서 이 책을 편찬하니 충심이 엉기었네.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넷물은 흘러 쉬지 않느니 비탄한들 어찌 하리오. [責難於君謂之恭, 陳善閉邪謂之敬. 白首彙編, 丹心耿結. 日逾邁, 川流不息, 悲歎奈何]”라고 적었다.

류이좌는 만년에 고향 하회로 돌아와 병산서원에 瞻學所를 설치하여 고을의 많은 선비들을 교육하였다. 또한 그는 집 뒤에 小齋인 大有齋를 짓고 마을의 秀才들을 모아 여름과 겨울에 講製를 하였다.

1837년(헌종 3) 가을에 陶山書院에서 『退溪文集』을 중간할 때에 士林에서 류이좌를 두 번이나 추천하여 院長으로 삼자, 그는 병을 무릅쓰고 수레를 타고 가서 그간 간행되지 못한 책 열 두 권을 찾아내어 함께 간행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류이좌는 사촌형 류상조와 같은 해(1763)에 태어나 같은 해(1794)에 과거에 합격하여 조정에서 같이 벼슬을 하면서 가장 가깝게 지냈다. 또한 류이좌는 족속인 柳尋春과 학문을 토론하고 道義로 연마하며 류성룡 이후의 가학을 잘 이어나갔다.

56) 『鶴樓文集』 권10, 記, 和敬堂記. “甲戌先君, 奄棄不肖, 風樹之哀, 穹壤莫逮, 而堂亦稍久傾圮, 余懼斯堂之未能保守先蹟也, 竭心重修, 柱樑椽桷, 改其朽傷, 居處旁室, 未或增廣. 工垂訖, 傍人請以前日頌禱者, 扁揭堂楣. 余曰吾堂不含有扁, 且前日之扁, 惟欲念念於北堂萬歲之祝, 而今於終天之後, 因而扁堂, 有未敢者, 無已則特揭前人之訓辭, 以之自勉, 以詔後來子孫, 其或爲堂構之一端耶? 先君臨終, 戒不肖曰每事克盡忠孝, 每事必要和敬, 嗚呼! 誠至訓也. 承聆在耳, 銘佩在心, 出入動靜, 每懼乎圯絕罔階, 奈其持心不固, 客氣未祛, 居官失長廉遠恥之風, 奉祭無齊明如在之誠, 尋常接人, 率多粗厲, 是皆忠孝和敬之反也. 五十知過, 尙矣難追, 而年迫致仕, 餘生幾何? 忠孝之扁, 吾宗家已有所揭, 而和敬字, 實亦忠孝上一箇塗轍, 和以事親則孝, 敬以事君則忠, 書揭于堂, 日夕瞻慕, 以寓警省焉, 宜爾室家, 樂爾妻孥, 內外族戚, 親疎賓客, 無所忤怒, 而先君遺教之意, 其在斯矣.”

57) 『鶴樓文集』 권4, 書, 與江阜族叔 王辰.

58) 『鶴樓文集』 권10, 跋, 巴山先生遺稿跋.

류이좌는 평소 남의 과실을 말하지 않았고 남의 과실을 와서 말하는 자가 있으면 침묵을 지키고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19세기 초부터 屏虎是非가 일어나 屏論과 虎論에서 서로 柳成龍과 金誠一이 이황의 嫡傳과 正脈이라고 주장하며 土論이 분열되자 류이좌는 末俗을 개탄하며 스스로 호를 龔啞라고 했다. 그는 물론 병론에 속했지만 병호시비의 해결을 위해 사림을 대표하여 韓致應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⁵⁹⁾ 또한 그는 李仁行에게 보낸 편지에서 虎溪書院에 李象靖을 追享하려는 논의에 대해 사론이 답답해하던 나머지에서 나온 것으로 선비들이 이의가 없지만, 다만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중대하므로 도모하는 것을 넓게 하고 도모를 이루려고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상정을 종사하는 논의가 일자 즉석에서 爬任을 한 것은 넓게 도모하는 일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⁶⁰⁾

류이좌는 정조·순조·헌종 三朝에 걸쳐 立朝 40년에 내직으로는 수찬, 장령, 사성, 사간, 집의, 헌납, 필선, 보덕, 좌윤, 호조·예조참판, 동지경연사, 동지의금부사, 동지돈녕부사를 지냈다. 그는 외직으로는 부여·현풍현감과 안변·김해부사를 지냈다.⁶¹⁾ 그는 守令은 實心으로 物을 사랑하고 實政으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⁶²⁾ 또한 그는 7년간 규장각의 초계문신으로 활동했고, 3년간 승정원에서 記注官의 임무를 맡아서 했다.⁶³⁾

류이좌는 正祖朝에 같이 벼슬했던 영남의 동료와 평소 약속을 하여 죽은 뒤에 銘旌에 규장각 ‘抄啟文臣’ 네 글자가 쓰여지도록 유언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정조의 恩遇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1837년 11월 26일에 향년 75세로 화경당에서 작고하였다. 1838년(헌종 4) 2월에 예천 古縣 九月峯(의성군 다인면 고현 坎坐) 아래에 장사지냈다.

1839년(헌종 5) 11월 2일에 헌종은 賜祭文을 지어 예조정랑 李容敏을 류이좌의 靈位에 보내어 치제를 하게 했다.⁶⁴⁾

1902년(고종 39) 무렵에 손자 柳道性이 류이좌의 시문집인 『鶴棲文集』 20권 10책을 간행하였다.

IV. 학문성향

류이좌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주자학자였다. 그는 우선 周敦頤와 二程(程顥·程頤)의 心學의 핵심이 主靜과 主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主靜이 주돈이의 「太極圖說」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心學의 二字符라고 했다. 그는 정자가 主靜에서 靜을 敬으로 고쳐 主敬을 제시한 것은 道學의 하나의 宗旨라고 했다.⁶⁵⁾

59) 『鶴棲文集』 권4, 書, 與韓粵山 代士林作.

60) 『鶴棲文集』 권4, 書, 答李公宅.

61) 현재 류이좌의 扶餘縣監 告身(1800), 世子侍講院 弼善 告身(1813), 禮曹參判 告身(1830) 등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풍산류씨 화경당(북촌택)』, 한국국학진흥원, 2014, 62, 64쪽).

62) 『鶴棲文集』 권8, 朱子大全故寔 抄啓應製, 己未.

63) 『鶴棲文集』 권20, 附錄, 祭文 [堂兄相前]·祭文 [堂姪進翼]

64) 『鶴棲文集』 권20, 附錄, 賜祭文; 『풍산류씨 화경당(북촌택)』, 한국국학진흥원, 2014, 83쪽.

류이좌는 젊어서부터 『大學』과 『中庸』 및 程朱書를 깊이 공부를 하였다. 그는 四書중에서도 특히 『대학』과 『중용』에 대해 여러 견해를 제시하였다.

류이좌는 『대학』의 大旨은 敬 자에 있으며 따라서 經1章과 傳10章 중에 어느 한 곳도 敬字를 드러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다.⁶⁶⁾ 그는 『대학』의 가르침은 반드시 明明德 세 글자로 한 책의 綱領으로 삼는다고 했다.⁶⁷⁾ 그는 정조와 『대학』의 首章에 “대학의 道는 明德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한 구절의 명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정조는 류이좌 등 신하들에게 명덕은 心인가, 性인가, 심은 大人의 심인가, 赤子의 심인가, 성은 本然의 성인가, 혹은 氣質의 성인가, 적자의 심과 대인의 심이 순수하게 좋하다면 심의 惡한 것은 마땅히 어디에 속하겠는가, 심의 本體는 虛靈하고 明은 본디 知覺인데 德도 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性은 心이 발동하지 않은 상태의 未發과 심이 이미 발동한 상태의 已發이 있으니 명덕은 심이라 할 수가 없고 심은 또한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으니 명덕을 성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⁶⁸⁾

이에 대해 류이좌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얻어진 것의 허다한 도리가 마음속에 있는데, 그 光明한 곳이 이른바 明德이니 명덕이란 것은 本心의 虛靈不昧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명덕이 사람에게 있을 적에 그것을 담아 놓은 것은 性이지만 그 전체의 있는 곳은 心이고 그 큰 작용이 유출하는 것은 情이라고 했다. 심이 발동하지 않을 때에는 이 심의 광명한 본체가 되고 이미 심이 발동한 후에는 이 심의 광명한 작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朱熹는 명덕을 해석하기를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 허령불매하여 여러 가지 이치를 구비하여 모든 사물에 감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허령불매를 명덕을 형용하는 제일 첫째의 뜻으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⁶⁹⁾

정조는 宋나라 학자 盧孝孫(玉溪)이 明德을 本心으로 해석한 설을 지지하였다. 류이좌도 노효손의 명덕 본심설을 지지하여 명덕은 오직 본심의 虛靈不昧라고 이해했다. 그는 명덕은 다만 본심이고, 虛라는 것은 心의 고요함(寂)이고 靈이라는 것은 心의 느낌(感)이라고 했다. 주희는 오직 虛하기 때문에 衆理를 갖추고 있고 오직 靈하기 때문에 만사가 응한다고 했는데⁷⁰⁾ 류이좌는 명덕은 어둡지 않는 心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일에 응하는 情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명덕은 범범하게 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로지 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⁷¹⁾

이러한 류이좌의 해설에 대해 정조는 批答을 내려 “未發과 已發의 性을 發揮하였으니 奇特하고 기특하다. 비로소 嶠南(嶺南)의 學子의 實地着力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다.⁷²⁾

65) 『鶴樓文集』 권5, 中庸講義條對 1, 抄啓應製, 丁巳, 第1章.

66) 『弘齋全書』 권129, 故寔 1, 大學.

67) 『鶴樓文集』 권8, 大學問對 1, 抄啓應製, 丙辰.

68) 『弘齋全書』 권56, 雜著 3, 問明德; 『鶴樓文集』 권8, 大學問對 1, 抄啓應製, 丙辰.

69) 『鶴樓文集』 권8, 大學問對 1, 抄啓應製, 丙辰.

70) 『鶴樓文集』 권8, 大學問對 1, 抄啓應製, 丙辰.

71) 『鶴樓文集』 권8, 大學問對 1, 抄啓應製, 丙辰.

72) 『日省錄』 정조 20년 11월 28일(기사). 正祖의 「問明德」 문제지와 류이좌의 問對, 정조의 평가 점수와 批答이 쓰여 있는 고 문서가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풍산류씨 화경당(복촌택)』, 한국국학진흥원, 2014, 44~45쪽).

한편 『대학』의 傳 10장의 “군자는 혈구의 도가 있다(君子有絜矩之道).”라는 구절에 대하여, 류이좌는 이 絜矩 한 章은 『대학』의 최종 목표이니, 대개 好惡는 혈구의 법칙이고 財用과 用人은 혈구의 도구이며, 慎德 두 글자는 혈구의 근본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이른바 신덕이란 것은 오직 義와 利, 公과 私의 구분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했다.

류이좌는 『대학』 한 章은 修身으로 근본을 삼는데, 治國은 孝, 悌, 慈에 근본을 두고서 仁, 讓, 忠, 恕로 미쳐 가는 것이며, 平天下 역시 孝, 悌, 慈 세 가지에 근본을 두고서 먼저 덕을 삼가는 것으로 통괄하고 혈구의 道로 관통하는 것이라고 했다.⁷³⁾

정조는 자신이 20년 동안의 한 가지 고심이 絜矩 두 글자에 있었으니,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간격을 허물고 서로의 嗜好를 조절하며 物我를 공평히 하고 好惡를 공정히 하여, 다 함께 大中至正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신하들이 국왕의 뜻을 잘 받들어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병통이 어디에 근원하는가 라고 묻고 있다. 정조는 자신의 마음이 곧 신하의 마음이고 신하의 마음이 곧 一國의 마음이고 일국의 마음이 곧 만국의 마음이니, 實心으로 實學을 강론하고 실학으로 實事를 실행하는 것이 곧 오늘날의 급선무이며, 자신이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⁷⁴⁾

한편 류이좌가 지은 「中庸講義條對」는 정조가 『중용』의 疑義에 대해 조목별로 下問한 것을 류이좌가 초계 문신으로 있으면서 정조에게 강론한 내용이다.⁷⁵⁾

정조는 『중용』수장의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라는 것은 道心을 이르는 것인데, 性과 心이 과연 구별이 없다면 王守仁의 心은 곧 理이고 心은 곧 道란 학설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비난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류이좌는 道心이 오직 隱微하다는 말은 舜임금과 禹임금의 말이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라는 것은 子思의 말이라고 하면서, 天命이란 글자와 性이란 글자 사이에 이미 率이란 글자를 붙여 놓았으니 천명이란 글귀의 말과 술성이란 글귀의 말은 진실로 바로 성이란 글자로서 이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道는 性命에 근원한다고 말했으니 心과 性의 구별은 진실로 이미 환하게 밝아졌다고 했다. 그것이 王守仁의 무리들의 心은 곧 理이고 心은 곧 道라는 학설에 비교한다면 두 학설의 거리가 아주 멀다고 했다.

류이좌는 『중용』의 首章에서 誠을 말하지 않았으나 실체는 그 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中和를 이루고 천지가 제 자리에 서고 만물이 자라는 것이 하나의 誠字가 주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誠은 實理, 實心을 이른다고 하면서, 하늘에 있어서는 實理이고 命이라는 것은 실리의 근원이고 性이라는 것은 실리를 품부받은 것이고 사람에 있으면 實心이고, 道라는 것은 실심의 功이고 教라는 것은 실심의 드러남이라고 했다.⁷⁶⁾

또한 정조는 天命의 天이란 글자는, 해석하는 이들이 다들 理 자로 보는데, 주희의 『楚辭』 註에, “天이란

73) 『弘齋全書』 권129, 故寔 1, 大學.

74) 『弘齋全書』 권129, 故寔 1, 大學.

75) 『鶴樓文集』 권5, 中庸講義條對 1, 抄啓應製에 수록되어 있고, 『百世綱結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76) 『鶴樓文集』 권5, 中庸講義條對 1, 抄啓應製, 丁巳, 第1章.

理일 따름이다. 『尙書』의 上帝降衷과 『중용』의 天命之性이 이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주희의 뜻도 대개 또한 이 장의 天字를 오로지 理 쪽에만 소속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 학설은 끝내 막히는 바가 있다고 했다. 정조는 帝가 곧 理라면 이른바 上帝降衷이라는 것은 理로서 理를 내려 주는 것이 되고 天이 곧 理라면 이른바 天命之性이라는 것은 理로서 理를 부여하는 것이 되니, 입으로 입을 깨무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대개 陰陽 두 氣가 섞여서 屈伸하고 變化하여 四時가 운행되고 百物이 생겨나는 것은 본디 自然의 理가 아닌 것이 없는데, 참으로 그 主宰와 運用의 오묘함을 찾아보자면, 또 理라는 한 글자로 뜻을 다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主宰로 말하자면 帝라고 하고, 妙用으로 말하자면 神이라고 하고, 性情으로 말하자면 乾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같이 정조는 『중용』의 수장의 ‘天命’의 ‘天’자를 理로 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天이라는 글자를 理로 보면 理는 본래 정지나 동작이 없으니 또한 이것이 妙用, 性情을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이에 대해 류이좌는 子思가 이른바 天命의 理는 이미 理氣가 妙合한 가운데 나아가 홀로 그 無極의 理를 지적하여 純善하여 섞이지 않는 體를 밝힌 것인 즉 理가 나온 바의 天을 미루어 밝힌 것이라고 했다.⁷⁷⁾

류이좌는 『중용』의 戒愼恐懼에 대해 설명하면서 계신공구의 공부는 持敬 두 글자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주희가 만년에 敬자의 뜻을 말하면서 오직 畏자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 외자에는 계신공구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⁷⁸⁾

정조는 朱子書의 原集에 批點과 圈點을 찍어 초록하고 選集을 많이 편찬하였다. 이에 대해 류이좌는 주희 글의 깊은 맛과 뜻을 섭취하여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撮要를 만들어야겠다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을 알지만, 후세에 이 책을 보는 사람이 혹 한갓 간편한만 좋아한다면 혹 학자들로 하여금 지름길을 좋아하고 速成을 바라는 마음을 열지나 않을까 우려를 하였다.⁷⁹⁾

한편 주희의 「齋居感興」시에 대하여 류이좌는 그 大意가 다만 하나의 感이란 글자에 있을 뿐이라고 했다. 무릇 사람의 마음에 흥기되는 바가 있으면 느껴지며 激發되는 바가 있으면 느껴지며 감정을 붙이는 바가 있으면 느껴지며 근심하고 슬퍼하는 바가 있으면 느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희가 이 시를 지은 것이 대개 근심과 탄식이 격발된 느낌에서 나왔으니 그 읊은 시를 외우고 만난 시대를 논하여보면 異端의 학설이 난무하고 人心이 골몰해졌으니 이것이 주희가 느껴진 까닭이었으며 皇綱이 해이하고 和議가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 주희가 느낀 까닭이었다고 했다.⁸⁰⁾

류이좌는 「武夷權歌」시에 대해, 이 시 한 편을 근세의 선비가 道學의 단절(虹橋一斷無消息)이나 好色の 제거(道人不復荒臺夢) 등으로 주해를 내린 것이 있으나 성현의 말은 위아래로 모두 통하여 가로로 봐도 세로로 봐도 자연히 이치가 철저하니, 평이한 곳인데 굳이 고원하게 볼 필요가 없고 무심히 지은 것을 무슨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희가 詩를 해석한 뜻이 본래 이와 같으니, 주해에서

77) 『鶴樓文集』 권5, 中庸講義條對 1, 抄啓應製, 丁巳, 第1章.

78) 『鶴樓文集』 권5, 中庸講義條對 1, 抄啓應製, 丁巳, 第1章.

79) 『弘齋全書』 권131, 故寢 3, 朱子大全 2.

80) 『弘齋全書』 권131, 故寢 3, 朱子大全 2.

말한 것은 아마도 천작과 건강부회를 면치 못한 듯하다고 했다.⁸¹⁾ 정조는 류이좌가 말한 ‘평이한 곳인데 굳이 고원하게 볼 필요가 없고 무심히 지은 것을 무슨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안 된다’는 말이 매우 옳다고 했다. 그는 유독 시를 해석함만 그렇지 않고 經을 해설함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⁸²⁾

주희는 張栻에게 답한 편지[答張敬夫書]에서, “莊重하고 沈密한 氣象이 다소 부족하니, 이런 까닭에 暴露함이 많고 함축함이 적다.”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 대해 류이좌는 장중과 침밀이 未發 상태의 기상을 잘 형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무릇 천하의 일은 本體가 있는 뒤에 作用이 있고 근본이 있는 뒤에 말단이 있는 법이라고 하면서, 子思가 처음으로 미발이란 말을 꺼내었고, 程朱 등의 학자가 ‘主靜’ 두 글자로써 학문 전수의 旨訣로 삼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오늘날 선비들은 일체 이와 반대여서 애초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내면을 곧게 하는[靜虛內直] 공부에 종사한 적이 없어 사물이 어지러이 다가올 때 응접함에 착란을 일으켜 이치를 분명히 비추어 볼 수 없게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조는 류이좌의 말이 옳다고 했다.⁸³⁾

주희는 林用中에게 답한 편지에서, “병아리를 보고 生意가 드러남을 안다.”라고 하였는데, 류이좌는 병아리가 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 또한 이로써 나머지 전체의 이치를 유추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하늘이 백성을 낳음에 만물이 저마다 한결같지 않아 혹은 순수하고 혹은 駁雜하고 혹은 부유하고 혹은 빈한하고 혹은 영화롭고 혹은 비천하니, 백성들이 형통한 사람은 적고 곤궁한 사람은 많게 마련이라고 했다. 류이좌는 온갖 群像의 인간들을 거론하며 이들이 모두 분주히 생활하는 것은 병아리가 닭 둥지 속에 있는 光景과 같다고 하면서, 정조에게 굶어 살피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다. 류이좌는 천지간에 생명이 있는 무리에 대해 우리 인간이 同胞의 仁을 넓히어 八道の 쓰러진 자로 하여금 天理에 편안한 자리에 앉게 하고 멀고 가까운 곳을 同體로 여기게 한다면 천지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옛사람이 닭이 알을 품는다는 뜻을 취한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⁸⁴⁾

이에 대해 정조는 “병아리를 보고 生意를 아는 것은 仁이니, 仁이란 理의 공변됨[理之公]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바야흐로 八荒(온세상)의 거리를 틔우고 萬川의 달을 거두어 빛을 받아들이는 곳은 반드시 비추고 그늘진 벼랑에 모두 봄이 오도록 하여, 온 세상의 생명을 가진 모든 무리들이 다 함께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경지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고자 한다고 했다. 사실 정조는 萬川明月主人翁을 자처하며, “蕩蕩平平”의 皇極蕩平을 정치적 목표로 하여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노론이나 소론을 막론하고 다 같이 大道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정조에게 류이좌의 말은 정조의 마음을 후련하게 했다.⁸⁵⁾

81) 『弘齋全書』 권131, 故寢 3, 朱子大全 2.

82) 『弘齋全書』 권131, 故寢 3, 朱子大全 2.

83) 『弘齋全書』 권131, 故寢 3, 朱子大全 2.

84) 『鶴樓文集』 권20, 附錄, 家狀 [柳暉題].

85) 『弘齋全書』 권131, 故寢 3, 朱子大全 2.

V. 맺음말

안동 하회의 풍산류씨는 류성룡의 忠孝에 더하여 류원지의 拙誠, 류사춘·류이좌 부자의 和敬을 그 가훈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류성룡의 증손 류의하가 건립한 ‘忠孝堂’은 류성룡의 가르침인 충효를 드러내어 후손들이 충효를 생각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하회 북촌의 ‘和敬堂’은 和를 통해 孝를 다하고 敬을 통해 忠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류이좌는 풍산류씨의 가학 전통인 충효와 절성, 화경을 朝野에 있으면서 평생 지켜나가야 할 일로 생각하며 생활하였다.

류이좌의 학문성향은 주자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는 우선 朱子書를 깊이 공부했고 주자서의 綱領이 義理를 밝힌다는 ‘明義理’ 세 글자에 있다고 했다.

류이좌의 삼종조인 류규는 류이좌에게 명예를 가까이하지 말고 靜坐하여 未發前의 氣象을 보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李侗이 羅從彦의 문하에 나아가자 나중언이 이동에게 종일 危坐를 하여 喜怒哀樂의 未發前의 기상을 증험하게 하여 이른바 中을 구하게 했다고 하면서, 이동이 나중언으로부터 전수받은 이 가르침이 바로 이황과 류성룡 등의 학문연원이 나온 곳이라고 했다. 그는 子思가 처음으로 未發이란 말을 꺼내었고, 二程과 주희 등이 ‘主靜’ 두 글자로써 학문 전수의 旨訣로 삼았다고 했다. 그는 周敦頤와 이정의 心學의 핵심이 主靜과 主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主靜이 주돈이의 『太極圖說』의 가르침으로 심학의 二字符라고 했다. 그는 정자가 主靜에서 主敬으로 전환한 것은 더욱 道學의 하나의 큰 宗旨라고 이해했다.

류이좌는 四書 중에서도 『大學』과 『中庸』을 깊이 연구하고 강설하여, 『대학』의 강령인 明明德의 명덕을 本心으로 이해했고, 『중용』의 핵심인 誠은 實理, 實心을 이른다고 했다. 그는 우선 明德에 대해 本心の 虛靈不昧한 것이라 이해했다. 그는 명덕은 어둡지 않는心を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일에 응하는 情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명덕을 범범하게 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로지 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류이좌는 『중용』의 首章에서 誠을 말하지 않았으나 실재는 그 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中和를 이루고 천지가 제 자리에 서고 만물이 자라는 것이 하나의 誠字가 주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誠字에 대해 하늘에 있어서는 實理이고 命이라는 것은 실리의 근원이고 性이라는 것은 실리를 품부받은 것이고 사람에게 있으면 實心이고, 道라는 것은 실심의 功이고 教라는 것은 실심의 드러남이라고 했다.

류이좌는 주희가 “병아리를 보고 生意가 드러남을 안다.”라고 한 구절에 대해 병아리가 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 또한 이로써 만물의 전체의 이치를 유추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조는 “병아리를 보고 生意를 아는 것은 仁이니, 仁이란 理의 공변됨(理之公)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바야흐로 온세상의 거리를 띄우고 萬川의 달을 거두어 빛을 받아들이는 곳은 반드시 비추고 그늘진 벼랑에 모두 봄이 오도록 하여, 온 세상의 생명을 가진 모든 무리들이 다 함께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경지의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데, 류이좌가 이러한 말을 해주어 자신의 마음이 후련하다고 했다.

이러한 류이좌의 학문성향은 18세기말 英·正祖시대에 義理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조선 주자학의 정치적 성향을 지니면서, 아울러 ‘實心으로 實學을 강론하고 실학으로 實事를 실행하는 것이 곧 오늘날의 급선무’라고 말한 정조의 經世學的 주자학의 학문성향을 공유했던 주자학자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 『古文書集成』 20 - 屏山書院篇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1994.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柳道性(著), 柳永夏(發行), 柳澤夏 編輯, 『石湖文集』 大譜社, 1997.
 柳元之, 『拙齋文集』, 한국문집총간 속 28, 한국고전번역원, 2010.
 柳台佐, 『百世隕結錄』(한국국학진흥원)
 柳台佐, 『闡揮錄』(한국국학진흥원)
 柳台佐(著), 柳永夏(發行), 柳澤夏 編輯, 『原文 鶴棲文集』, 大譜社, 2000.
 柳台佐(著), 柳永夏(發行), 柳澤夏 編輯, 柳龍佑 譯, 『國譯 鶴棲文集』, 大譜社, 2000.
 李堉, 『俛庵集』, 한국문집총간 속 96, 한국고전번역원, 2012.
 『日省錄』(국사편찬위원회)
 鄭經世, 『愚伏別集』, 한국문집총간 68, 민족문화추진회, 1998.
 正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2~267, 한국고전번역원, 2005.

논저

- 권오영,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권오영, 『근대이행기의 유림』, 돌베개, 2012.
 안병길, 「풍산류씨 가문의 학문 전통과 가학 계승」,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한국국학진흥원, 『풍산류씨 화경당(복촌덕)』,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鄭經世 史料精選』, 2015.

* 이 논문은 2019년 5월 24일에 투고되어,
 2019년 6월 17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7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7월 24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The Life and Academic Propensity of Ryu Yijwa(柳台佐)

Kwon, Ohyoung*

Ryu Yijwa(柳台佐, 1763~1837) was born as the 8th generation of the Pungsan Ryu Family in Hwa-Hwi, Andong, in which two letters of meaning loyalty(忠) and filial piety(孝), were passed from Ryu Sungryong(柳成龍). He kept and practiced the academic principles of the Pungsan Ryu Family. He realized that the core of Natural Science elucidated by Joo donee(周敦頤) and two Jung(二程) lied on Jujung(主靜) and Jugyeong(主敬). He understood that Jujung was the center of practical ethics and the transition of two Jung from Jujung to Jygyeong was also the center of Natural Science through teachings of 「Taegukdosul(太極圖說)」 by Joodonee.

Among the Four Books, Ryu Yijwa studied and preached on 『Daehak(大學)』 and 『Jungyong(中庸)』 in depth. He understood the illustrious virtue(明德) of Myeongmyeongduk(明明德), a doctrine of 『Daehak』 by his heart. He even mentioned that the Myeongduk was a figure of one's true self. He also claimed that the illustrious virtue contains a mind, not dark, as well as affection. Moreover, he claimed that a faith(誠), the core of 『Jungyong』, represented practical interests(實理) and a practical mind(實心). He also claimed that practical interests were the core of the heaven, and a life(命) referred to the source of practical interests and the sex was the practical interest assigned from the heaven. He understood that persons were all about practical minds, and morally was a meritorious deed from a practical mind and a faith(教) was the revealability of a practical mind. He also said that a doctrine of Jujaseo(朱子書) lied on three letters of 'Myeongeuri(明義理)', which can be defined as lightning of fidelity(義理). His such academic propensity was in line with the political bias of Neo-Confucianism, overly emphasizing a virtue of fidelity during the reigns of King Yeongjo and King Jungjo, of the late 18th century, and the academic propensity of Administrative Neo-Confucianism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 assisting 'It is an urgent task of today to preach on the Practical Science and to practice and exercise the Practical Science.

[Key Words] King Jungjo, Natural Science, Neo-Confucianism, Pungsan Ryu Family, Ryu Sungryong, Ryu Yijwa

*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